

# “매출 제로” 더는 못버텨”...광주·전남 여행업계 ‘곡소리’

## 문체부, 지역 여행업계와 간담회

“12·3 비상계엄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져 광주·전남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광주·전남지역 여행업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제주항공 참사 이후 광주·전남 여행업계 대표들은 매출이 ‘제로’가 돼 경영난에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여행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역 여행업계의 고충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관기관 및 광주·전남 9개 여행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여행업계 대표들은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상품이 거의 전멸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던 외국인 여행 수요가 비상계엄 이후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이어져 ‘제로’가 됐다의 것이다.

무안 공항을 통한 광주·전남 인바운드 여행객은 매년 6000~7000명에 달했지만, 올해 초 한명도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여행업협회 부회장이자 광주에서 여행업을 26년째 하고 있는 함수일 여행사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호남권 여행사 대표들은 말 그대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기분’”이라고 호소했다.

함 대표는 “서울이든 부산이든 인바운드 여행객의 5%정도라도 광주·전남 여행으로 유도해 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무안국제공항 운영이 중단됨에 따른 국내여행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홍 지구촌 여행사 대표는 “강진의 경우 ‘반값 여행’이 큰 호응을 얻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다고 한다. 공항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라도 국내여행을 통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반값여행 등 국내여행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주시면 한시적으로나마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여개에 달하는 광주지역 여행사의 1~2월 매출이 300억, 8월~10월 매출이 1000억원에 달한다

정국 불안정에 제주항공 사고까지 경영난에 직원 떠나고 운영 비상 지자체 통한 국내 여행 지원 국제·대규모 행사 전남 유치 등 정부, 호남권 업계 ‘핀셋 지원’을

는 점에서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월급 등을 제대로 줄 수 없을만큼 지역 여행업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전남지역 680여개 여행업체를 조사해보니 월 200만원, 전남 전체적으로 1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업체당 많게는 5명까지 직원을 두고 여행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버티지 못하고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어 정상화 되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수한 상황만큼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일성 전남관광협회 회장은 “예약 취소 등 피해를 입은 여행사를 대상으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남도에서 300만원 상당의 홍보 물품을 제공했는데, 손님이 없는데 홍보 물품이 전부 무스소용이나”고 되물었다.

홍 회장은 “중앙에서 실시하는 국제·대규모 행사를 전남에 유치해 지역관광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지역 여행사 대표들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광주지역 여행업계는 되려 소외받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광주공항을 한시적으로 국제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선석현 광주관광협회장은 “제주항공 참사로 가라앉은 분위기에 광주지역 여행업계에는 현재 예약도 문이 없다. 광주공항이 2007년까지 국제선 기능을 해왔던만큼 하늘 길을 열어준다면 관광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체부는 “광주공항에 국제선을 취항할 수



11일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전남 지역 여행업계 간담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여행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는 점에서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구상해 보겠다”고 답했다.

문체부는 광주·전남 여행업계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 직접 피해 여행사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광주·전남지역 여행 독려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지역 특별 프로그램 운영, 외래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전남 여행업계에 손실보전금과 지역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지역 여행업계의 실제 피해를 보충할 손실보전금과 숙박 세일 페스타 등 지역 여행에 대한 특별프로모션과 국내외의 관광 박람회 홍보 지원, 국제회담 등 대규모 행사의 지역 개최 등을 통해 지역 관광수요 회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화장실 출산 신생아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 감형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은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4시에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고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가족들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

리지 않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출산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남자친구와 영화를 봤고, 남자 친구가 집 주변에서 아이의 사체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를 알려주자 모른 척하기도 했다.

A씨는 친부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남자친구에게 임신사실을 알릴 수 없었고, 가족에게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심신미약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이긴 하나 범행 당시 현장을 정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범행을 인지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며 “다만 낮은 지적 수준으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

## “5·18정신 펠웨어·尹 비호 극우집회 철회하라”

### 광주 기독교 단체

광주 지역 기독교 단체가 오는 15일 보수 기독교 단체 주관으로 광주에서 열린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광교협)는 11일 성명을 내고 “광주에서 광주정신을 펠웨어하고 사법체계를 능멸하는 극우 집회를 열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

광교협은 “15일 세이브코리아가 광주에서 여는 집회에는 소위 ‘일타강사’라는 극우 유투버 전한

길, 부정선거라는 망상적 주장을 계속해 온 황교안 전 총리, 세계교회회 순현보 목사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고 한다”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극한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극우집회는 결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체포돼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옥중 메시지를 쏟아내며 극우세력의 준동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서부지법 폭동사태, 현재 흔들기 등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체계를 능멸하는 악랄하고 졸렬한 공작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교협은 “5·18광주정신을 펠웨어하고 사법체계를 능멸하며 기독교신앙을 오염시키는 극우집회는 광주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세이브코리아는 집회를 즉각 철회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오는 15일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비 내리는 정월대보름...9시 이후 구름 사이 보름달

올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12일) 광주·전남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만 늦은 밤 비가 그치며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2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10~4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11일 예보했다. 나주와 장성 등 전남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비는 12일 밤부터 서서히 그치겠으며, 기상청은 오후 9시 이후 늦은 밤부터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보름달은 광주·전남

지역 기준 12월 오후 5시 41분에 뜨고 13일 오전 7시 48분에 질 예정이다.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 완전히 둥근 달을 볼 수 있는 시각은 12일 오후 10시 53분이다.

기온은 평년(최소 영하4~0도·최고 5~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다.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0~6도·낮 최고기온은 8~12도로 대체로 포근하겠고,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5~0도·낮 최고기온은 5~9도에 분포해 아침 기온 쌀쌀하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낮 기온이 오르면서 강, 호수, 저수지 등의 얼음이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유기능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2017 건강기능식품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 섭취량 중 총 다당체 함유량인 300mg입니다.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받은 광고를 입니다.